킹제임스 성경학교

성경강해 SR#1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송 요 셉

제 5 강의 : 희생 제물이 되어 참소하는 사탄을 짓밟으신 그리스도

기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자세히 알고 친근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을 잘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깊이 알 때,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친구처럼, 형님처럼, 신랑처럼 함께 다니며, 또 죄악을 멀리함으로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벌벌 떠는 삶 속에서 균형을 잘 맞추고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와 소개◀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주님이 죽으셨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① 그 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고통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② 그리고 우리들의 범죄 행위를 대속하신 것은 물론, ③ 그 범죄 자체만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보상까지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빚이 있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갚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 채무자나 채권자나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일이지요. 제사에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1 장에는 "번제" / 2 장에는 "음식제사" / 3 장에는 "화목제" / 4 장에는 "속죄제" / 5 장에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모든 면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먼저, 오늘은 번제에 관한 1 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번제에 드려지는 "세가지 희생 제물 — A 소, B 양, C 새에 대한 제사법" 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말씀 5 : 레위기 1 장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으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제물을 드리려면 너희는 가축 중에서 곧 소떼나 양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드릴지니라

28

A 그의 제물이 『**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며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주께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그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중의 성막 문 옆에 있는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며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니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 뜬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B 만일 그 사람의 제물이 『**양떼나 염소떼의 번제의 희생**』이면 그는 흠 없는 수컷으로 가져올지니 그는 북쪽을 향한 제단 면에서 주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위 사면에다 피를 뿌릴지니라 그는 그것을 그 머리와 기름과 더불어 베어서 그것의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요 그는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사를지니라 그것이 번제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C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제물이 『**새의 번제의 희생**』이면 산 비둘기들이나 어린 집 비둘기들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피는 제단 곁에다 짜낼지니라 그 모이 주머니는 그 깃털과 함께 뽑아서 제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버리고 날개를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 불 피운 나무 위에서 사를지니라 그것이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희생제물에 대한 안수와 사역자들에 대한 안수를 구별해 함부로 하거나 받지 말라◀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주님이 "그 흠 없는 어린 양"이지요? 죄를 지어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을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번제물 머리에 →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 대한 최초의 안수로,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야, 내 죄를 가지고 가서 네가 대신 죽어라!" 하고 "죄값을 짐승에게 전가시킨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에 대한 안수입니다. 그러므로, 안수를 함부로 받으면 안수자의 죄악이나 악한 영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신약 시대의 안수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여러 사역자들 —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와 같은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그 안수자가 받은 은사가 →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될 때 하는 안수도 그 사역자들에게 안수자들이 받은 은사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손을 얹을 때 너에게 임한 은사를 잊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안수 할 때 그 은사가 임하는 것이지요. 저는 안수해줄 때, 저에게는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가 흘러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의롭게 하라고 합니다. 안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께 안수할 것인가?◀

본문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갈 제물에 → 본인이 안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수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물의 머리를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번제물을 자기가 죽이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게 희생 제물처럼 손을 얹고 안수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드린, 내 죄를 가지고 가는 흠 없는 어린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은, 번제단의 희생 제물처럼 피를 흘리는 고통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지요.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29

희생양의 은혜를 진리의 지식과 함께 전하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자들을 보고 배우라◀

구원만 달랑 받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의 지식을 알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고 →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뿐만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같이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온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히스패닉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알론드라 같은데 여기저기 여러 지역에서 날품을 파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말고 다른 곳에도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파송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멕시코도 같이 다니는 어느 집사님은 시간을 더 내서 그 목사님들도 돕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홈디포에도 1.5 세 전도자가 나와서 히스패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요. 그 집사님은 그 전도자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들이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소속이냐는 상관 없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교회마다 사람을 뽑아서 동역을 시키십니다. 몸은 하나고 각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로칼 처취들은 떨어져있어도 각 지체들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그 몸만 데리고 올라 가시는 겁니다. 머리에 몸만 붙어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몸, 그 지체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들이 문젭니다. 어느 로칼 처취에 속해있던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에 갈 때마다 여러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몇 천명이 다 주님의 지체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교회의 소속이 상관이 없지요. 똑 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하나님 자녀들도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번에 같이 간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밴 두 대를 기증하고 왔습니다. 부부가 돈을 많이 버는데, 사는 건 조그만 아파트에 삽니다. 남편 집사님이 멕시코로 가다가 패스포드를 깜박 잊고 안 가져온 것을 국경에 거의 다 와서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음에 기증하지...." 할 텐데, 이 분은 거기서 밸리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후 세시쯤 와서 밴 두 대를 멕시코 교회에 기증한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지요. 은혜와 진리는 오늘도 어디에선가, 그 누구에 의해서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 현장에서 죄는 반드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주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죄의 내용을 담대히 증거하라◀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칼로 찔러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성소가 있는 성막 앞에 내가 주님을 데려갔고, 내가 칼로 찌르고 주님이 모든 죄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2000 년 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찌른 것으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갈 때 로마서 3 장 말씀을 묵상하며 갔습니다. 죄들이 많이 나오지요. 음란, 도둑질, 미워하는 죄, 죽이고 싶은 죄, 불평한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 이게 다 내 죄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했지요.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4000 년 동안 참소한 사탄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죄들을 용서해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지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며 그 계획을 세우신 것을 마귀가 알고 4000 년 동안을 불평했습니다. 사탄은 늘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그렇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 장을 보면 "큰 용이요 옛 뱀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 놈이 "우리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참수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기도 전에 용서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봤자 다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냐? 나면서부터 죄인들이 아니냐? 또, 이런 죄들을 지은 것을 어떻게 그냥 용서해주느냐? 그들을 용서한다면, 하나님은 나쁘다!" 했음이 분명합니다. 요즘 말로,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쁘다!" 한 겁니다. 그게 참소하는 것이지요.

30

형제들을 참소했다는 것은, "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주느냐?" 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나는 한 번 밖에만 죄를 지었는데 왜 나는 용서 안하고 밤낮 죄를 짓는 저 사람들은 용서해주느냐? 짐승 같은 인간들을 왜 용서하느냐? 나는 그래도 하늘에서 덮는 그룹이었고, 그룹 중에서 최고 높은 내가 한 번 반역했다고 해서 나는 용서 안하고 왜 저 하찮은 인간들은 용서하느냐?" 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내 형상대로 창조한 귀한 존재들인데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냥 용서하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따졌을 겁니다. 욥의 시험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 하다, 공평하지 않다"고 참소한 겁니다. 그 4000 년 동안을 4 일처럼 하나님이 마귀에게 원망을 듣고 시달리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 제물로서의 의미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탄의 참소는 끝이 났다◀①

그런 사탄의 참소를 듣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침례인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요단 강에서 성령은 비둘기로,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삼위의 동시 출현입니다.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광야로 데리고 나갔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때 하나님은 마귀한테, "봤지, 너? 내가 불의한 자가 아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바꿔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는데, 너, 할 말 있냐, 없냐?" 하셨을 겁니다. 창조주를 종의 형태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사탄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지요. 제 생각에는, 그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 장에 제자들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했습니다. 주님이,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노라"고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 때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러면서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던 그 사탄이 2 층천으로 쫓겨난 것이지요. 그 사탄이 이 땅으로 내쫓겨올 때 "하늘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찐저"

했습니다. 못된 놈이 하늘에서는 사라졌지만, 땅에서는 그 놈 때문에 골치 아프게 된 겁니다. 원수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을 내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3 층천 하늘"에서 "공중, 2 층천으로", 그 다음에는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지 않느냐" 로마서 3 장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의롭다 하시고 그의 아들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4000 년 동안 "하나님은 의롭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도 죄가 있습니다. 저들을 그냥 용서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한 사탄에게 끝내기 한방을 먹인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사람을 죽였는데 판사가 "너는 죄가 없다"고 하면 그 판사는 불의한 사람이지요. 또, 죄가 없는데 유죄판결을 하면, 그것도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잠깐 동안 오해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이 희생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여기 레위기서에 예정하신 대로 이 번제의 희생물로 드리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자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31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이 불의하다고 참소한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다◀②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잠깐 동안 불의한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 이것이 불의한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해 하기가 힘들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불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번씩 강해를 하고 늘 보는 말씀인데도 깜짝 놀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엔 이 말씀을 뭐라고 했나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3 장 25,26 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자신도 의롭게 되시고』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의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어떻게 공의롭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의롭게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4000 년 동안을 (사탄의 참소를 참으시며) 의롭지 않은 상태로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왜 인간들도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들만 사랑해요?" 하고 따졌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마귀가 무슨 살인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반역하기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지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 험한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복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으라◀③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뜻은, 성령의 도우심을 깊이 알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신문에 컬럼을 1 년 가량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한 번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다. → 그 기회를 잃지 말아라" 하고 쓴 적이 있습니다. 못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면 →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생을 해도 →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옛날에, 멕시코에서 어머니도 창녀였고, 자신도 창녀였던 그 자매도 구원을 받으니까 →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 자기 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세타령만 했습니까?『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보통 축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욥은 그걸

몰랐을 때,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 " 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기회를 잘 챙겨야 합니다.

희생제물로 불태워진 주께서 주시는 불 시험은 '주의 영이 머무는' 감사해야 할 축복이다◀④

잠깐(사천년=사일)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불의하다는 말까지 들으며 참으시다가 독생자를 보내시고, 고난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깜깜한 가운데 세 시간 동안 달리게 하시고,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것을, 하나님은 "내가 그걸 어떻게 보나!"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도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써먹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제가 일했던 전자 회사 사장님이 제게 "과장님, 내가 그 사람 옆을 지나갈 때 어깨를 툭 두드리면서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화를 내고, 더 짜증을 내고, 더 몰아세웁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불신자였지요. 하나님도 써먹을 사람은 고난 속에서 불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왜 주님의 몸을 불로 살랐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불로 연단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사자굴로, 불로 연단한 불 같은 시험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 장 12,13,14 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 분께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 때에 →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무신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조금 다친 것을 감사하는 정도 같은 차원이 아니고, 사고가 난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 안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감사로 넘어가야만,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승리와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감사하라

저는 처음 구원 받은 그 때에 이것을 깨달아서 무조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신음하면서도 감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도 죽으라고 했을 때 감사함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이만큼 있어야 하는데 요만큼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없는 거 자체, 있는 거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쁜 일을 감사할 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좋은 것만 찾아서 감사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험의 연속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 병자입니다. 파도타기를 하는 사람이 파도가 밀려오지 않으면 재미있겠습니까? 파도가 오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그걸 타고 넘으면 신나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신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내일 온다는데 오늘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니까 86 년도에 Aero Mexico 가 80 여명을 태우고 착륙하려는데, 하필 그 때 LAX 에서 뜬 세스나 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 바로 쎄리토스 카메니타 상공이었지요. 떨어진 주택가가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 때 그 동네에서 잠을 자던 자던 사람들은 그 일을 꿈이나 꿨겠습니까?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깨어있음으로 늘 준비되어있음을 감사하라

우리는 군대처럼 오분대기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분 안에 완전무장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있어야 합니다. 저의 어머님은 권사님이셨는데, 옷을 벗지 않고 주무십니다. 내복도 항상 깨끗하게 하시지요. 제가 "왜 그러세요?" 하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어떻하느냐?" 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 그 옷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왔다가 가신 그 권사님도 항상 신부단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들한테 "주님 곧 오실텐데,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울 나무 위에 나를 놓고 스스로 불살라 주께 드릴 준비가 된 희생 제물인가를 생각해보라◀④

레위기 1 장 8 절의 "불 위에 나무를 정연하게 놓으라"는 말씀에서 "나무"는 "십자가" 입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이 지고 간 나무도 정연하게 놓았었지요. 불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각을 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보낼 내 아들이 죽으면 되는 거다. 이삭은 나를 대신하는 거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양으로 드리셨습니다. 모리야 산, 그 산이 지금의 temple of mountain 이고, 그 옆에 골고다가 있습니다. 4000 년 전에 이미 주님이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불살라진 제물은 한줌의 재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임을 깨달으라◀⑤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놓고 불 위에다 정연하게 나무를 놓고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은 각 뜬 부분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다 정연하게 놓을 것이나 그 내장과 다리들은 물에 씻어 제사장이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의 희생으로 불로 드리는 제사게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죽였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인지상정으로도, 자식의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난들 부모 마음에는 싫은 것이 없지요. 하나님께는 그 냄새가 우리를 구원할 아들의 몸이 타는 냄새이기 때문에 "향기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100% 순종하신 우리 주님, 그 향기가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번제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형제가 되었다◀⑥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독생자의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부끄러울 게 없지요. 우리가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잠깐 동안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녀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요, 우리는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야,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제 입을 닥치고 꺼져라. 불 못에 떨어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요 형제가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년 동안 구덩이에 들어가 있다가, 잠깐 나오지만,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영원히 떨어져라!" 하신 것이지요. 완전히 불 못에 떨어지면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까? 영원 세계의 시작이지요. 그게 결론입니다.

희생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깨어있는 자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⑦

깨어있는 자들이여, 지진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찬송할지어다!

오늘 주의 만찬을 하지요.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영접한다고 할 때, 보통 "마음으로 영접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이미 죄가 다 용서되었고 → 그 죄는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되지요. 죄만 없어지면 뭐합니까? 생명을 받아야지요. 죄가 있을 때는 생명을 못 받습니다. 주님이 희생양으로 드려져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죄가 없어지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다르게 보였던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침대에 느긋하게 누워서 집 앞에 산을 창 밖으로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지진이 났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며 춤을 추었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진이 나도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진 진동에 맞춰서 춤을 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지진이 와도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희생양으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당부와 권면◀

1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우리가 죽을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신 완전한 대속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제도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감이 나겠습니까?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아는 거라고는 마약과 알코올이 인생의 전부인 죄악뿐인 그 사람들에게, "그 죄들을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다. 합법적인 용서다. 여러분들이 '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 이러면 안 된다. 당당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셨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싹 없어진 거다. 아멘?" 하고 전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없습니다. 이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다르게 말하는 캐톨릭이 문제입니다. 선행을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에다가 인간의 의를 섞기 때문에 안됩니다. 기독교가 아니지요.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거짓말 한 번 한 사람이나 살인을 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순간에 죄는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세나 다윗이 살인을 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쓰신 이유입니다.

2 자기의 죄도 모르면서 남의 죄를 판단하지 말라

삼강오륜의 유교적인 전통에 물들은 한국 사람들은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나은데 ... "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삶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 판단할 것 없이, "내 죄밖에 모르니까 나만큼 죄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남들이 어떻게 압니까? 내 속은 내가 훤히 아는 것이지요. 누구나 내 죄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내 죄만 아니까 남의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누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이렇고 저렇대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입니다.

3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죽도록 헌신하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으시면서 "너희는 안 죽어도 된다. 안 죽고 생명을 준다." 하셨지요.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을 맛 보았고,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도 삽니다. 우리는, 창조주인데도 사람이 되어서 죽음까지 순종하신 그 분 안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피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피"**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 " 하는 마음인 겁니다. 늘 부르면서 언젠가는 "예수의 피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 ..." 하는 거지요. 그 피값으로 "내 죄가 다 도말 된 것"을 깨닫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 미칩니다.

4 큰 꿈을 갖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제가 거듭나고 보니까, 사업도 하고 돈도 버는 목적이 이걸 알릴려고 한 것이었지요. 먹고 사는데도 그렇고, 사역하는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크리스찬들이 먹고 살려고만 일하는 건 정말 삶이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지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지금, 멕시코 선교지에 자영 농업장이 있지요. 그 사업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써포트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그 형제들에게 "10 년 후면 여기가 배나무로 울창하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배나무를 다섯 그루 심어놨지요. 그게 뻗어나가면 되는 거지요. 또, "지금 이 센터가 목조 건물이지만, 이거 다 허물고 멋진 호텔처럼 시설도 잘 해놓고 할거다. 여러분이 여길 졸업해도 여기 와서 농사지으며 양계, 양돈도 하면서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며 계속 쓰임 받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며 훈련 받아 남미 전 지역 온 나라로 가서 그대로 거기서 또 시작해서 그 곳 사람들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나는 그게 보인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지 않았느냐?" 하고 선포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어려워도 그 꿈을 이루려고 힘이 나고 기뻐합니다. 그 꿈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에 피곤한 겁니다.

5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라

오늘 이 번제에서 제사장이 번제물을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를 하늘에 가지고 올라가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 피를 보면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모를 때도 있고, 실수할 때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있지만, 주님이 위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이시지요. **『흠 없는 자신을 번제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여기 레위기에 나와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음의 고난에 순종하셨습니다. "무조건 용서는 의롭지 못한 재판관들이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는 것과 같은 것" 이라고 마귀가 참수하는 것을 정당화 시키려고 빌립보 2 장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조건 순종만이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100% 순종하게 되어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